

부채 취약가계 결정 요인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Risky Debts

백은영* · 성영애**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인천대학교 소비자이동학과

Baek, Eunyoung* · Sung, Yong Ae**

Dept. of Asset Management, Kyung Hee Cyber University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risky debt loads. The study used financial ratios to determine which households were over-indebted. The 3 ratios used were Debt to Asset ratio,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and Debt Service ratio. Data for this study was the 2011 Survey of Household Finance. Households that demonstrated total debts of 70% or more when compared to total assets were 8.8%. Households that demonstrated a debt load totaling 5 or more times their total financial assets were 19%. Households with monthly repayment obligations of 40% or more of disposable income were 20%. Households that fulfilled all 3 financial ratio criteria were 1.5% of total indebted households. Over-indebted households demonstrated severe economic condition in terms of debt, but not all over-indebted households were categorized as being in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 The major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risky debts were income, asset, purpose of loans, and spending behavior of the households.

Keywords: Households debt, debt to asset ratio,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debt service ratio, risky debt

I. 서론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1천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무렵과 비교해 볼 때 거의 5.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가계 부채의 총량 수준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최근 3년여 동안 그 증가율이 평균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Bank of Korea, 2011)으로 급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 대출로 인하여 가계의 부실 위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국가 경제 및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까지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심

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계 부채에 관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 가계부채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부채의 증가 요인과 그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에 관한 분석(Kim, 2010; Lee, 2011; Chong, 2006)이 주를 이루어 왔고, 미시적 관점에서 수행된 가계 부채에 관한 연구들(Baek & Hong, 2004; Chein & DeVaney, 2001; Sung, 2010)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또는 재무적 요인들이 가계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가계 부채 관련 연구들은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점에서 그 증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계부채가 지난 10여년간 상당히 증가해 왔고,

* First Author: Baek, Eunyoung
Tel: 02-3299-8539, Fax: 02-3299-8889
Email: eunibaek@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Sung, Yong Ae

최근 들어서는 실물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들이 수행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관한 분석들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Lee, 2010;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11). 그 이유로는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건전성이나 가계의 자산상황, 총 부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대 대출비율 및 이에 따른 금융사의 흡수능력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장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여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요인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다. 특히 총량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취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부채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산이나 소득이 충분치 못하면서, 즉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하면서 부채를 늘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부채 취약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총량 중심의 전반적인 사항 보다는 부채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가계 전체가 아닌 부채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며, 금융사 입장이 아닌 가계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부채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가계부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전통적인 소비-저축

이론에 입각하여 가계부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가계부채는 저축의 반대되는 개념(dissaving)으로 전통적 소비-저축 이론인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을 기반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의 기본 전제는 가계는 비교적 안정된 소비흐름을 유지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소득 흐름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지출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항상 (또는 전생애에 걸쳐) 유지 된다고 봄으로써 가계의 저축 및 부채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는 현재소득 보다는 항상소득 또는 생애소득에 의해 결정되므로 소득 흐름에 따라 저축 또는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에서는 소득의 일시적 변화분에 따라 저축 또는 부채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생애주기 전반부 및 은퇴 이후의 기간, 즉 생애주기 후반부에는 부(負)의 저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Ando & Modigliani, 1963). 즉,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서는 비록 현재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소비자(가계)라면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자본이나 자산 등을 고려하여 항상소득이나 생애소득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게 되며 이 때 발생하게 되는 현재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부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생애주기 전반부 또는 은퇴 이후에는 부채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부채 문제는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 실증연구에서는 이론이 예측하는만큼 젊은층이나 노년층에서 부채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축이 발생한다는 점과 이론이 예측하는 소득 및 소비곡선이 실제와는 서로 상이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hefrin & Thaler, 1988; Thurow, 1969). 예를 들면 Thurow는 생애주기 가설이 예측한 바와는 달리 소득 및 소비곡선 모두 평행한 형태로 위로 볼록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동안 가계부채와 관련한 연구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현실 세계에는 신용 제약(credit constraints)이 존재하므로 전통적 소비-저축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원하는 만큼 부채를 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Deaton, 1993; Carroll, 2001). 즉,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채를 이용하고자 하나 신용제약에 따라 부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원하는 만큼 부채를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자는 전통적인 소비-저축 이론

이 설명하는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늘 부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선호에 따라 부채를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모두 부채를 지는 것도 아니다(Deaton, 1993). 이렇듯 부채는 소비자의 선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 역시 부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Bryant, 1990).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하여 Bryant는 가계부채 행동은 현재 및 미래의 소득과 자원, 가계의 선호, 가격이 가계의 부채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가계 부채 행동은 인적자본 및 신용 계약을 포함한 현재 및 미래의 재무적 자원과 선호, 또는 가계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계 고유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부채의 가격인 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가계부채 관련 연구

가계 부채 관련한 연구는 그동안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가계부채를 거시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총량지표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가계 부채 동향을 분석하거나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반적인 가계 부채 증가 요인 또는 그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Lee, 2011; Chong, 2006; Debelle, 2004; Dynan & Kohn, 2007).

가계부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으로 가계부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및 재정적 변수들이 가계부채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밝혀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령, 성별, 결혼상태, 자녀수, 교육수준, 직업 또는 종사상 지위, 주택 보유여부, 소득 및 자산 변수들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Baek & Hong, 2004; Bertaut & Haliassos, 2001; Chien & DeVaney, 2001; Kim & Kim, 2010; Sung, 2010; Sung, 2006). 그러나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은 종속변수가 부채 보유여부나 부채 규모나에 따라, 부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부채 종류별, 용도별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어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Bertaut와 Haliassos는 신용카드 보유와 신용카드 부채규모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육수준이나 결혼상태는 신용카드 보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인의 경우 신용카드를 보유할 확률은 높았으나 신용카드 부채를 질 가능성은 백

인이 아닌 경우와 자녀수가 많은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득, 교육수준, 주택보유 여부는 신용카드 보유여부 및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할 확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금융자산은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할 확률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육수준의 경우 신용카드 보유 및 신용카드 부채 보유 확률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신용카드 부채 규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자에 비해 가구주가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부채 보유 확률은 더 높았고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채를 더 많이 보유하였다(Baek & Hong, 2004).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시계열로 분석한 Kim & Kim(2010)의 연구에서는 평균 부채 규모가 전통적 생애주기 가설이 가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45-54세의 연령층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부채 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에 비해 현재 기혼이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 부채 규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가족수가 많을 수록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부채규모는 증가하였는데, 금융자산과 부채 규모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에 비해 상용임금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모두에서 부채규모는 더 컸으며 특히 자영업자인 경우 부채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도 부채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한 가계부채의 증가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 각 연도 더미가 모두 부채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부채규모의 증가에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실물자산 취득 및 보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렇듯 기존 연구들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이나 소비자의 자원에 해당하는 재무적 변수들의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수들 이외에 과연 어떠한 필요(needs)에 의해 가계가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진 바가 없다. 최근 부채를 용도별로 구분해 각각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Sung, 2010)가 있으나 부채 용도가 가계부채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Sung은 부채를 11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따른 부채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재무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교육수준이나 주택보유, 소득, 실물자산, 금융자산 등이 각각의 용도별로 구분한 부채 보유 여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용도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Sung(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Lee(2011)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나 소득, 자산, 주택보유와 같은 변수들이 부채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양호한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서 증가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양상은 생계형 대출 및 저소득층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로(Bank of Korea, 2011)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계 부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부채건전성에 대한 분석, 부채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최근 몇몇 연구들은 부채 건전성을 분석하고 과다채무가계, 부채취약가계 또는 계층별로 구분하여 가계부채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Kim, 2010; Kim & Kim, 2010; Min & Choi, 2008). 이들 연구에서는 소득 및 자산 계층을 구분하여 가계부채를 분석하거나 재무비율을 적용하여 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무비율 기준에 따라 과다채무가계, 부채 취약가계 등을 구분하여 부채문제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과다채무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채건전성을 판단하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여 총자산 대비 총부채 수준이 70% 이상인 경우(DTA1), 총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수준이 5배 이상인 경우(DTA2),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이 40% 이상인 경우(DSR1)를 과다채무가계로 정의하고 있으며(Kim *et al.*, 2010; Kim, 2010; Kim & Kim, 2010),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이 25% 이상(DSR2)인 경우는 부채가 소비를 왜곡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Choi *et al.*, 2003).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가계를 계층별 또는 부채건전성에 따라 과다채무가계 또는 취약가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채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부채 취약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부채 취약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지만 Kim(2005)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부채부담을 연구하면서 부채비중에 따라 가계 부채 수준을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총자산 대비 부채가 0.4 이하이면 안정적가계, 0.4-0.7 사이면 중간위험집단, 0.7

이상이면 매우위험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본 있는데,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 매우위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및 총부채액은 매우위험 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안정적 집단에 비해 중간위험이나 매우위험 부채 집단이 될 가능성을 분석하고는 있으나 부채 보유 가계 중 취약 집단을 구분하거나 취약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도 취약가계에 초점을 두어 기존 선행연구에 나타난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가계부채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용도를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여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이다. 가계금융조사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소득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금융시스템 발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는 조사이다(Statistics Korea, 2011). 가계금융조사는 전국 거주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되며 표본 규모는 약 10,000가계이다. 본 연구는 부채 보유가계 중에서도 특히 부채 취약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체 가계 중에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부채 보유가계는 전체의 약 63%에 해당하는 총 6,554개 가계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부채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 중 과다채무가

계의 재무적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 중 부채 취약가계의 특성은 일반 부채 가계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변수 측정 및 분석 방법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y_i^* = \beta_0 + \sum_{j=1}^k \beta_j \chi_{ij} + \mu_i \quad (1)$$

$$y_i = 1 \text{ if } y_i^* > 0 \quad (2)$$

$$y_i = 0 \text{ if otherwise} \quad (3)$$

여기서 y_i^* 는 응답자들이 부채 취약가계에 해당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채 취약가계는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재무비율 중 부채와 관련한 재무비율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 총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부채상환액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계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거기준으로 활용하는 대신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하기 위해 과다채무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근거로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하였다. 즉, 선행연구에 근거하여(Kim, 2010; Kim & Kim, 2010; Bank of Korea, 2011) 총자산 대비 총부채가 70% 이상인 경우(DTA1), 총금융자산 대비 총부채가 5배 이상인 경우(DTA2),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부채 상환액이 40% 이상인 경우(DSR1)와 소비수준을 왜곡할 수 있는 수준인 월평균소득 대비 월평균부채 상환액이 25% 이상(DSR2)의 기준(Choi *et al.*, 2003)을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이상의 4가지 기준 중 3가지(DTA1, DTA2, DSR1)기준을 활용하여 부채 취약가계를 판단하였으며 부채 취약가계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부채 취약가계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 중에서도 부채 자체가 매우 과다하거나(DTA1), 유동성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거나(DTA2) 혹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가계(DSR1)와 같이 부채 문제가 심각한 가계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모

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부채 취약가계로 정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과다채무가계로 구분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x_{ij} 는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짓는 영향요인들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 부채 용도를 포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사상 지위, 주택보유 여부와 가족수를 포함하였으며, 재무적 요인으로는 소득, 자산과 소득대비 지출 변수를 포함하였고 대출용도를 포함하였다. 가구주 연령 및 가족수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 결혼상태는 기혼 및 기타, 주택보유 여부는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로 구분하여 각각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1,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0으로 하는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의 4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임금근로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기타에는 임시, 일용직 임금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에 해당하는 응답자와 실업자, 주부, 학생, 은퇴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은 각각 4분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소득대비 지출정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경우, 소득이 지출보다 큰 경우의 세 가지로 측정하였다. 대출용도는 거주주택마련,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증권투자금 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의료비 마련,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출 용도를 크게 목적별로 5가지로 구분하였다. 대출 용도가 거주주택 마련일 경우, '주택마련'으로,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이나 증권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생계목적' 대출로, 대출용도가 사업자금을 위한 것이라면 '사업자금'으로, 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생활목적자금 마련'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부채 관련 특성 및 과다채무가계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량이 산출되었고, 일반부채 가계와 부채 취약가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chi-square 및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채 취약가계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채 보유 가계의 특성

부채 보유 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의 조사대상 가계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총 6,554 가계로 전체 가계의 63.27%에 해당하였다. 부채 보유 가계의 특성을 살

펴보면, 남성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의 85.5%였으며,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인 경우로 35%를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인 경우가 81% 정도였고 61% 정도의 가계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임금근로자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자로 전체의 22% 정도를 차지하였다. 소득대비 가계지출을 살펴보면, 소득보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Categorical Variables	Debtors(n=6654)		Non-debtors(n=3863)	
	Frequency	%	Frequency	%
Gender				
Male	5,687	85.47	2,693	69.71
Female	967	14.53	1,170	30.29
Education				
Middle school (≤ 9 years)	1,334	20.25	1,563	40.46
High school (=12 years)	2,345	35.24	1,141	29.54
University (≤ 16 years)	2,462	37.00	983	25.45
Graduate school (>16 years)	513	7.71	176	4.56
Marital status				
Married	5,401	81.17	2,273	58.84
Divorced or Widowed	826	12.41	1,121	29.02
Single	427	6.42	469	12.14
Employment status				
Full-time employer	2,815	42.31	1,160	30.03
CEO(with employees)	582	8.75	114	2.95
Self-employed(without employees)	1,434	21.55	581	15.04
Others	963	14.47	676	17.50
Home ownership				
Home owner	4,068	61.14	1,912	49.50
Renter	2,586	38.86	1,951	50.50
Income vs Expenditure				
Income < Expenditure	2,249	33.80	724	18.74
Income = Expenditure	2,484	37.33	1,975	51.13
Income > Expenditure	1,921	28.87	1,164	30.13
Continuous Variables				
	Mean	SD	Mean	SD
Age(years)	49.09	12.42	55.88	16.89
Number of family members	3.30	1.24	2.44	1.28
Total assets (Unit:₩10,000)	39,667.15	61,671	1,9174.11	31,562
Financial assets (Unit:₩10,000)	7,984.51	3,920	6,308.27	11,879
Real assets (Unit:₩10,000)	31,863.29	59,334	12,861.03	25,468
Total debts (Unit:₩10,000)	8,878.52	19,594	0	0
Annual Disposable income (Unit:₩10,000)	3,712.23	3,089	2,530.98	2,625

다 지출이 많았던 가계가 약 34%정도나 되어 소득이 지출보다 많았다고 응답한 29%보다 높게 나타났다. 37% 정도는 소득과 지출이 비슷했다고 응답했다. 총자산은 평균 약 4억원 정도였으며 실물자산은 3억2천만원 정도, 금융자산은 평균 약 8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총부채는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보다 다소 높은 8천9백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평균 3천7백만원 정도였다.

<Table 1>에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중 부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부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절반 이상이 50대 후반~90대에 해당하는 중고령층 이상의 가계들로 중고령층 가계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여성가구주인 가계가 30% 이상이며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가 29%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고령의 여성 가구주 가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수도 평균 3인이 안되어 은퇴 후 부부만 남아있는 가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력도 중졸 이하인 경우가 4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절반 정도는 지출을 소득과 비슷하게 하고 있었으며 소득보다 지출이 초과하는 경우는 약 19% 정도였다. 부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의 경우 부채가 없는 대신 실물자산 보유금액도 적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배분 특성에 따라 총자산도 적게 나타났다.

2. 부채 보유 가계의 부채관련 특성

부채 보유 가계의 부채관련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Table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과반수가 넘는 57%로 나타났으며 신용대출은 37% 정도, 신용카드 관련대출은 전체의 약 11% 정도가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 종류별 보유 금액은 담보대출이 평균 4천8백만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신용대출은 평균 951만원, 신용카드 관련대출은 평균 72만원 정도였다.

대출 용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4%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¹⁾ 다음으로는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가 약 26%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17%), 기타 생활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도 15% 정도 나타났다. 보유액을 살펴보면,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이 평균 약 1,700여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대출을 살펴보면, 은행을 통한 대출이 48%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비은행 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은 23% 정도로 나타났다. 보험사 대출은 약 7.5% 정도였으며 대부업체 대출은 약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기관은 직장, 각종공제회, 개인을 통한 대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약 9.6% 정도가 기타기관을 통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 상환방식에 따라서는 수시상환을 포함한 기타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이 38%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이 26% 정도로 많았다. 원리금 분할상환은 약 14% 정도이고 원금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은 11% 정도였다.

부채보유 가계의 부채가 생계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부채로 인하여 생계를 영위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계는 전체의 24% 정도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 부채 취약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지급이자 및 상환액의 평균은 8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3. 과다채무가계의 재무적 특성

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 부채 취약가계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총자산 대비 총부채, 총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의 3가지 재무비율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Kim *et al.*, 2010; Kim, 2010, Kim & Kim, 2010)의 과다채무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총부채가 총자산의 70% 이상이거나(DTA1), 총부채가 총금융자산의 5배 이상이거나(DTA2)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일 경우(DSR1)와 부채로 인하여 소비수준이 왜곡될 수 있는 수준인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25% 이상이 되는 가계(DSR2) 기준 역시 적용하여 4가지 기준으로 부채 보유가계를 분류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

1) 생계목적의 대출에는 대출용도가 생활비, 부채상환, 전월세보증금마련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 비중은 각각 생활비 23.82%, 부채상환 4.96%, 전월세보증금마련 5.18%로 생계목적의 대출 항목에서는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하고 있는 가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계들은 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도 부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계로 볼 수 있다. 전체 부채 보유 가계 중 총부채가 총자산의 70% 이상인 가계는 전체 부채 보유가계의 약 8.8%인 586가계로 나타났으나, 총부채가 총금융자산의 5배 이상인 가계는 전체의 약 19%인 1,283가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인 가계는 전체의 약 20%인 1,333가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25% 이상인 가계는 전체 부채 보유가계의 약 30% 해당하는 2,025가계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총부채가 총자산의 70%이상인 가계는 주택보유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가계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소득 대비 지출이 많았던 가계의 비중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선 55%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 정도에 있어서도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계가 전체의 60%였으며 부담이 없다고 한 경우는 5% 정도였다. 평균 1억4천4백만원 정도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총자산 보다도 부채가 더 많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실물자산 보유액은 1억 미만으로 다른 3가지 기준으로 가계를 분류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Debts of Households with Debt Holding (N=6,654)

Variables	Frequency	%	Mean	SD
Type of Loans				
Secured Loans	3,766	56.6%	4,836.58	13,538
Unsecured Loans	2,469	37.11%	951.37	3,433
Credit card related Loans	731	10.99%	71.72	389.49
Purpose of Loans				
For Home	1,702	25.58%	1,737.71	4,939
For Investment	587	8.82%	1,115.63	6,556
For Cost of Living	2,259	33.95%	739.66	2,835
For Business	1,134	17.04%	1,713.04	10,047
For Specific Living purposes	979	14.71%	420.06	2,573
Types of Institutions				
	Frequency	%		
Banks	3,159	47.48%		
Mutual savings bank/Credit unions	1,543	23.19%		
Life insurance companies	498	7.48%		
Securities companies	2	0.03%		
Consumer Finance Companies	89	1.34%		
Others	367	9.57%		
Types of Repayments				
Repayment at Maturity	1,716	25.79%		
Repayment of principle	721	10.84%		
Repayment of principle & interests	904	13.59%		
Repayment of P/I or	500	7.51%		
Partial repayment before maturity				
Others	2,551	38.34%		
Debt Burden				
Heavy burden	1,575	23.67%		
Somewhat burden	2,790	43.93%		
No burden	1,557	23.40%		
Monthly Debt repayments	82.60(Mean)		236.65(SD)	

(Unit: ₩10,0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Over Indebted Households

Categorical Variables	Debt/Total Asset ≥ 0.7 (n=586)		Debt/Financial Asset ≥ 5 (n=1,283)		Debt service ratio ≥ 0.4 (n=1,333)		Debt service ratio ≥ 0.25 (n=2,025)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Home ownership								
Owner	116	19.80	1,058	82.46	822	61.67	1,251	61.78
Renter	470	80.20	225	17.54	511	38.33	774	38.22
Income vs Expenditure								
Income<Expenditure	322	54.95	559	43.57	640	48.01	913	45.09
Income=Expenditure	189	32.25	499	38.89	437	32.78	687	33.93
Income>Expenditure	75	12.80	225	17.54	256	19.20	425	20.99
Debt Burden								
No burden	30	5.12	102	7.95	187	14.03	298	14.72
Somewhat burden	201	34.30	484	37.72	585	43.89	916	45.23
Heavy burden	354	60.41	559	43.57	561	42.09	811	40.05
Continuous Variables ¹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otal Debts	14,415.23	37,293	18,760.82	33,156	14,344.69	24,709	12,833.23	22,028
Annual disposable Income	2,246.65	2,200	2,641.33	2,626	2,743.94	2,372	3,016.46	2,512
Financial Assets	2,392.96	4,287	1,502.67	2,830	6,688.80	12,781	6,581.06	11,748
Real Assets	9,687.77	31,592	4,6815.02	81,447	38,605.94	78,152	35,381.82	68,443
Debt repayments(Monthly)	121.88	270	125.05	335	249.92	443	196.10	369

¹: Unit for the continuous variables : ₩10,000

총부채가 금융자산의 5배 이상인 가계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총 자산 측면에서는 일반 부채 보유 가계 평균 보다 높지만, 전체 자산의 97% 가량을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상당히 왜곡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총 부채 보유액은 4가지 기준으로 과다채무가계를 분류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금융자산 보유액의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처분 소득도 DTA1의 기준으로 분류한 가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인 가계의 경우 월평균 원리금상환액이 250만원 정도되어 이는 평균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가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환능력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25% 이상인 가계 역시 일반 부채보유 가계 평균 보다는 평균 부채 보유액이 높기는 하나 이상의 3개 기준으로 구분한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극단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할 때 DTA1, DTA2, DSR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4가지 기준 중 DTA1, DTA2, DSR1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4. 부채 취약가계와 일반 부채 가계의 특성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과다채무가계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 보았을 때, 가장 취약한 가계는 DTA1, DTA2, DSR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로 볼 수 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는 전체 부채 보유 가계의 1.5%인 97가계로 나타났다. 부채 취약가계와 일반 부채 가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Table 4 참조>, 가구주 성별

〈Table 4〉 Comparison between Households with risky debts vs Households with debts

Categorical Variables	Households with Risky Debts (n=97)	Households with Debts (n=6557)	Chi-square
Gender			1.28
Male	81.44 %	85.53 %	
Female	18.56 %	14.47 %	
Education			0.76
Middle school (≤ 9)	22.68 %	20.01 %	
High school (=12)	36.08 %	35.23 %	
University (≤ 16)	35.05 %	37.03 %	
Graduate school (>16)	6.19 %	7.73 %	
Marital status			3.10
Married	74.23 %	81.27 %	
Non-married	25.77 %	18.73 %	
Employment status			9.01 *
Full-time employer	33.71 %	48.82 %	
CEO	10.11 %	10.04 %	
Self-employer	32.58 %	24.63 %	
Others	23.60 %	16.51 %	
Home ownership			3.81 *
Home owner	51.55 %	61.28 %	
Renter	48.45 %	38.72 %	
Debt Burden			103.27 ***
No burden	3.10 %	26.68 %	
Somewhat burden	25.77 %	47.47 %	
Heavy burden	71.13 %	25.85 %	
Income vs Expenditure			46.30 ***
Income<Expenditure	65.98 %	33.32 %	
Income=Expenditure	22.68 %	37.55 %	
Income>Expenditure	11.34 %	29.13 %	
Purpose of loans			13.92 **
For Home	8.00 %	25.87 %	
For Investment	14.00 %	7.83 %	
For Cost of Living	34.00 %	34.96 %	
For Business	32.00 %	18.01 %	
For Specific Living purposes	12.00 %	13.34 %	
Continuous Variables	Mean	Mean	t-test
Age(Years) ¹	48.26	49.11	0.67
Number of family(persons)	3.44	3.30	-0.95
Total Assets(₩10,000)	24,052	39,898	3.91 ***
Financial Assets(₩10,000)	2,032	8,073	15.20 ***
Real Assets(₩10,000)	22,020	32,009	2.62 *
Total Debts(₩10,000)	25,618	8,631	-4.42 ***
Monthly Income(₩10,000)	191	311	6.69 ***
Monthly Debt Repayment(₩10,000)	278	80	-5.42 ***
Purpose of Loans(₩10,000)			
For Home	4,463	1,697	-2.76 **
For Investment	5,505	1,051	-2.40 *
For Cost of Living	2,682	783	-2.33 *
For Business	7,824	1,623	-3.77 ***
For Specific Living purposes	599	417	-0.95

¹: Units are in the parentheses.

이나 교육수준, 결혼상태, 연령, 가구원수 등에 따라서는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종사상지위, 주택보유여부,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정도, 소득 대비 지출, 대출 용도별, 자산 및 소득 분위에 따라서는 부채 취약가계와 일반 부채가계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일반 부채가계의 경우 상용임금근로자가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9%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임시, 일용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가사, 실업자, 은퇴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여부는 일반 부채가계의 주택보유율은 약 61% 정도이나 부채 취약가계는 전월세 및 기타의 경우가 48% 정도로 일반 부채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채가 생계에 주는 부담정도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반 부채가계의 경우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채가 생계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7%로 나타난 반면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부담이 없다고 한 경우는 3%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70%가 넘는 가계가 부채가 생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약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산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부채 취약가계의 부채가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 대비 지출 역시 부채 취약가계와 일반 부채 가계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어 주었는데,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가계가 소득 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고 하였고 소득이 지출보다 높았다고 한 경우는 11%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반 부채 가계의 경우도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았다는 응답이 33%로 소득이 지출보다 높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지만, 부채 취약가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대출 용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대출 용도별로 살펴보면, 일반 부채 가계의 경우 전체의 1/4 이상인 약 26%가량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하였다면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는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은 8% 정도에 그쳤다. 생계목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가계 비중은 일반 부채 가계 및 부채 취약가계에서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35%가 생계목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부채가계의 경우 생계목적 대출 다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많았다면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는 생계목

적 만큼이나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가 전체의 32%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무적 변수들에 있어서 두 집단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 측면에서는 일반 부채 보유 가계가 약 3억9천8백만원 정도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부채 취약가계는 평균 2억4천여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자산 수준이 일반 부채 보유가계의 60%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경우 부채 취약가계는 일반 부채가계의 거의 1/4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자산은 약 1억원정도 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역시 총자산 수준과 비슷하게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일반 부채가계의 약 60% 수준이었다. 그러나 총부채는 거의 3배(300%)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며 월평균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부채 취약가계는 일반 부채 보유가계의 3.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여러 재무적 특성 중에서도 부채보유 수준에 있어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대출 용도별 평균 보유액을 비교해 보면, 5가지로 구분한 용도별 대출 보유액이 일반 부채 가계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생활목적 자금을 위한 대출을 제외하고 두 집단간 평균값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 부채 보유가계의 경우는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한 경우 부채 보유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 보유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투자목적 및 사업 자금을 목적으로 부채를 보유한 경우 평균 보유액은 일반 부채가계의 5배, 4.8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생계 목적의 평균 부채보유액도 3.4배 더 높았다.

4. 부채 취약가계 결정 요인

부채 취약가계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과다채무가계 결과를 토대로 4가지 기준 중 DTA1, DTA2, DSR1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하였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를 부채 취약가계로,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계는 과다채무가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Table 5참조>. 이는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가 가장 취약한 가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각각의 3가지 기준들 중 하나라도 충족시킬 경우 부채 보유 가계 중에서도 문제성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이기 때문에 이들 가계의 문제도 분석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 부채 보유가계 중 부채취약가계로 분류된 가

계는 총 97개 가계였으며 과다채무가계로 분류된 가계는 총 2,403 가계였다. 이렇게 두 가지 수준으로 부채 취약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때 문제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 좀 더 집중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또한 문제를 전반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과다채무가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채 취약가계의 경우,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보다는 주로 재무적 요인이나 대출용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및 자산 변수와 소득대비 지출, 대출용도 등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가 소득 4분위

에 해당하는 가계에 비해 부채 취약가계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2.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 있어서도 자산 4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에 비해 자산 1분위, 2분위에 해당하는 가계가 부채 취약가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2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 2.6배 이상, 자산 1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채 취약가계에 해당할 확률이 자산 4분위 가계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지출 변수 역시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 경우 소득과 지출을 비슷하게 한 경우에 비해 부채 취약가계에 속할 확률이 2.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에서는 가족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수가 많을수록 부채 취약가

(Table 5) Determinants of Households with Risky Debts

(N=6,654)

Variables	DTA1 & DTA2 & DSR1			DTA1 \ DTA2 \ DSR1		
	Estimate	SE	Odds Ratio	Estimate	SE	Odds Ratio
Age	0.0001	0.012	1.000	0.0003	0.003	1.000
Male(Female)	0.169	0.338	1.184	-0.026	0.096	0.975
Education(Middle School)						
High School	-0.029	0.314	0.972	0.091	0.083	1.096
University	0.258	0.353	1.294	0.274	0.094	1.315 **
Graduate School	0.373	0.528	1.452	0.397	0.137	1.487 **
Marital Status(Single&Others)						
Married	-0.439	0.339	0.645	-0.105	0.098	0.900
Employment status(Self-employed)						
Full-time employer	-0.065	0.300	0.938	-0.188	0.078	0.829 *
CEO	0.251	0.405	1.285	0.125	0.112	1.133
Others	0.097	0.299	1.102	-0.013	0.087	0.987
Home ownership (Renter)						
Owner	0.123	0.267	1.130	0.456	0.075	1.578 ***
Income vs Expenditure (same)						
Income > Expenditure	-0.216	0.378	0.806	-0.336	0.073	0.715 ***
Income < Expenditure	0.964	0.257	2.621 ***	0.411	0.064	1.508 ***
Number of Families	0.279	0.097	1.322 **	0.081	0.028	1.085 **
Income(4 quartile)						
1 quartile	1.009	0.395	2.742 *	1.785	0.102	5.958 ***
2 quartile	0.603	0.386	1.828	1.118	0.092	3.058 ***
3 quartile	-0.214	0.432	0.808	0.599	0.089	1.820 ***
Total assets(4 quartile)						
1 quartile	1.385	0.416	3.994 ***	0.093	0.104	1.097
2 quartile	0.956	0.385	2.602 *	-0.398	0.089	0.671 ***
3 quartile	0.491	0.388	1.634	-0.397	0.083	0.672 ***
Purpose of Loans						
For Home	-1.395	0.535	0.248 **	0.037	0.086	1.038
For Investment	0.830	0.434	2.293	0.429	0.134	1.535 **
For Cost of Living	0.930	0.305	2.535 **	-0.188	0.081	0.828 *
For Business	0.108	0.315	1.114	0.126	0.096	1.134
For Specific Living purposes	-0.833	0.448	0.435	-0.043	0.108	0.958
Intercept	-6.599	1.024	-- ***	-1.946	0.264	-- ***
Chi-square		105.15 ***			881.05 ***	
pseudo r-square		0.111			0.170	

¹ Reference groups are in parentheses.

* $p < 0.05$ ** $p < 0.01$ *** $p < 0.001$

계에 속할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용도는 5가지로 분류한 대출용도 중 주택마련 및 생계목적의 대출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 취약가계에 속할 가능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 취약가계에 속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가계인 과다채무가계를 대상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교육수준과 종사상지위, 주택보유여부, 가족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적 특성 중에서는 소득대비 지출, 소득, 자산, 대출용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중졸이하인 경우보다 대졸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부채 문제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용임금근로자가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부채 문제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여부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가족수가 많을수록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부채 문제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재무적 특성 중 소득 및 자산 변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득의 경우 소득 1분위에서 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거의 6배, 소득 2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3배 이상 확률이 높아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경우는 자산 2분위 및 3분위에 해당할 경우는 자산 4분위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부채 문제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용도에 따라서는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한 경우에는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한 부채 문제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생계목적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과다채무가계에 속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

라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를 중심으로 특히 부채 취약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선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의 일반적 특성과 부채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그동안 과다 부채 혹은 부채 취약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재무비율을 근거로 각각의 재무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가계들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과다 부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를 부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가계로 보고 이들 가계와 일반 부채가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채 취약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채 문제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부채 보유 가계의 부채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은행권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 비중은 부채 보유가계의 과반수 이상인 57%정도였고, 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절반에 가까운 48%정도였다. 대출용도별로는 생계목적으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보유금액면에서는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이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무비율을 적용해 볼 때, 총부채는 총자산의 약 22%수준이며, 평균 총금융자산 보유액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 총금융자산의 1.1배 수준이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26.7%로 소비지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 25% 기준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다부채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인 40%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일반 부채 보유 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지만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과다하게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경제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다채무가계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일반 부채 보유가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와는 달리 상당히 심각한 면모를 보여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TA1(총부채/총자산 \geq 0.7), DTA2(총부채/금융자산 \geq 5), DSR1(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geq 0.4)의 기준으로 과다채무가계를 분류해 보았을 때 각각의 기준

에 따른 부채 심각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총부채가 총자산의 70% 이상인 가계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총자산보다 총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총부채가 금융자산의 5배 이상인 가계의 경우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고 소득은 낮은 상태로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가계이다.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인 과다채무가계의 경우, 평균 원리금상환액이 평균 소득을 넘어서는 상태로 가처분소득만으로는 원리금상환이 힘든 상환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다채무가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계를 부채 취약가계로 정의할 때, 이들은 일반 부채 가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재무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결과에 따르면, 부채 취약가계는 일반 부채 가계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산이나 소득은 일반 부채 가계의 60% 수준인데 비하여 부채는 3배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도 3배 이상으로 부채 부분에 있어 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채 취약가계의 66%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고, 주로 생계목적이나 사업자금 때문에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가계 중 상당수(71%)는 부채가 생계에 매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

넷째, 부채 취약가계 결정요인 결과를 살펴보면, 부채 취약가계의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문제를 두 가지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과다채무가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보다 부채 문제를 좀 더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가계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재무적 요인 뿐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 교육수준 및 자산 변수 결과를 고려해 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경우도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의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어 우리나라 부채문제가 단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계에 국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 가계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도 해당될 수 있으며 부채가 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사상 지위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신용 제약(credit constraints)과 관련한 사안이 가계부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산 및 주택보유 여부, 대출 목적 중 투자목적인 경우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가지 기준 중 유동성 부분이 특히 취약한 DTA2를 충족시키는 가계의 경우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중은 거의 97%에 달하고 있어 총자산 개념으로 보았을 때 보유 자산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부동산 보유 또는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할 경우 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단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다부채 문제 중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시사해 주는 것으로 특히 실물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이 급격하게 경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가계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과다부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부채 취약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도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부채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과다채무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보다는 재무적인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중 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의 경우 자산 4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부채 취약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대출용도가 주택마련인 경우는 부채 취약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으나 대출용도가 생계목적인 경우는 부채 취약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채 취약가계는 저자산, 저소득 가계이며 주택마련이라든지 자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보유하기 보다는 생계를 위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부채 취약가계 결정요인 결과를 보면, 소득, 자산, 대출용도와 더불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변수가 있다. 이는 소득 대비 지출에 관한 변수로 공통적으로 소득 대비 지출이 더 많았을 경우 부채 취약가계에 해당할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 소득 계층을 막론하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무분별한 지출은 과다채무가계 또

는 부채 취약가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 재무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소득에 따라 지출을 조절하는 것, 예산을 수립하여 규모있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및 무분별한 대출의 결과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개인 및 가계 스스로가 과다 부채 및 부채 취약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일곱째, 본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 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분석해 보고자 부채 취약가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채 취약가계는 단순히 총부채 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재무비율을 분석해 봄으로써 부채문제를 파악해 볼 수 있고,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부채문제의 양상 및 심각성은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각 기준에 해당하는 그룹의 양상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부채 취약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주안을 두어 부채보유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과다부채가계 및 부채 취약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느 특정 취약계층만의 전유물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부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의 경우 중고령 가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재무적 특성을 살펴볼 때, 부채를 보유하고자 하나 신용제약 등으로 인하여 부채를 보유하지 못하는 가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보유 가계 및 부채 취약가계가 분석의 초점이므로 부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는 부채 보유 가계 중 부채 취약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느 한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채 취약가계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비율 이외의 다른 각도에서도 부채 취약가계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은행권 대출에 비해 다소 양호한 대출인 은행권 대출 대신 비은행권 대출을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다든지, 본 연구의 결과에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소득층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거나 서로 다른 영향을 보이고 있는 자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더하여 우리나라 부채 취약가계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가계 부채, 부채 취약가계, 총자산대비총부채 비율, 금융자산대비총부채 비율, 소득대비월리금상환 비율

REFERENCES

-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 *American Economic Review*, 53, 55-83.
- Baek, E. & Hong, G. S. (2004).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s on consumer deb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59-385.
- Bank of Korea (2011). The policy report for currency and credit.
- Bank of Korea (2011). The report for financial stability.
- Bertaut, C. C. & Haliassos, M. (2001). Debt revolvers for self-control. *HERMES Center Working Paper*. 01-11.
- Bryant, W.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oll, C. D. (2001).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with and without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3), 23-45.
- Chein, Y., & DeVaney, S. (2001). The effects of credit attitude and socioeconomic factors on credit card and installment debt.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1), 162-179.
- Choi, H. J., Lee, H. S., Yang, S. J., & Sung, Y. A. (2003). Development of the Indexes and

- Guidelines for Evaluating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 Using Financial Ratio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4(1), 99-121.
- Chong, Y. S. (2006).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household debts: Macroeconomic Factor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19(6), 2483-2504.
- Deaton, A. (1993). *Understanding Consum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belle, G. (2004).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rising household debt. *BIS Working Paper #153*, 1-46.
- Dynan, K. E., & Kohn, D. L. (2007). The rise in U.S. household indebtedness: Causes and Consequences. Retrieved November. 15, 2011, from www.federalreserve.gov/pubs/.../200737pap.pdf
-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2011. 6. 29). A comprehensive policy for households' debts soft landing. Retrieved October. 5, 2011, from http://www2.korea.kr/expdoc/viewDocument.req;JSESSIONID_KOREA=6kFJPNxTm4V1ndvsH6v2b0RXvdLq4PS3glWySHJYxq4b2bZjxHRS!-41934610?id=29016
- Kim, H. J. (2005). Analysis of Household Debt Burden by Income Classe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1(1), 119-147.
- Kim, H. J. (2010).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debt and sensitivity analysis. *Korean Economic Forum*, 3(3), 77-94.
- Kim, K. H., et. al. (2010). Determinants of households' debt. *Financial Economics*. 3, 1-243. Retrieved November. 10, 2011, from <http://dl.bok.or.kr/viewer/MediaViewer.ax?rid=5&cid=178087>
- Kim, W. Y. & Kim, H. J. (2010). The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indebtedness in Korea. *Kukje Kyungje Yongu*, 16(1), 39-78.
- Lee, K. B. (2010). Recent household debt trend and the implication. *Weekly Financial Brief*, 19(6), 3-7.
- Lee, S. Y. (2011). The trend of household debt and the implication. *KERI*, 1-13.
- Min, I. S. & Choi, P. S. (2008). A study on Korean household debt by selected characteristics of families. *The Social Science Researches*, 34(1), 135-165.
- Shefrin, H. & Thaler, R. (1988).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es. *Economic Inquiry*, 26, 609-643.
- Statistics Korea (2011). The results of 2011 Survey of Household Finance.
- Sung, Y. A. (200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s in household debts using panel dat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7(4), 39-60.
- Sung, Y. A. (2010).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holding of different purpos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1(3), 29-52.
- Thurow, L. (1969). The optimum lifetime distributi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American Economic Reviews*, 59, 324-330.
- YTN (2011). Regulators go all out to curb households debt.. "No more debt for households" Retrieved August 20, 2011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218187>

접 수 일 : 2012. 01. 16.

수정완료일 : 2012. 03. 20.

게재확정일 : 2012. 04. 05.